

CULTURE & PEOPLE



글 변라영 편집위원
사진 김하인

인간을 행복하게 만드는 일 '예술'과 '기술'의 공통점이죠

노준용 교수

KAIST 문화기술대학원장

얼마전 개봉했던 황정민, 정우가 주연했던 영화 '히말라야'는 감동적인 스토리와 배우들의 열연으로 화제가 됐다. 거기에 덧붙여 눈 덮인 거대한 산맥에 둘러싸인 영화의 배경에 관객을 최대한 몰입시키는 3면 스크린, 이른바 '스크린X'도 네티즌들 사이에 끊임없이 회자되었다. 3D나 4D보다도, 아이맥스 스크린보다도 영화에 대한 몰입감을 극대화시켰다는 것.

그 '스크린X'를 생각해내고 만든 이가 바로 오늘의 주인공 KAIST 문화기술대학원 노준용 원장이다. 직함에 어울리는 외모를 상상한다면 큰 오산. 터틀넥 스웨터에 청바지, 뽀족뽀족한 헤어스타일은 대학원장 보다는 멋쟁이 대학원생에 더 가깝다.

상상을 현실로 만드는 것이 내 일

KAIST 문화기술대학원의 제4대 원장이자 문화행사 위원장이기도 한 노준용교수. 그는 영화 컴퓨터 그래픽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인재이다. 2006년 KAIST에 부임하기 전까지 그는 할리우드 영화관에서 그야말로 ‘핫’한 컴퓨터 그래픽 사이언티스트로 활약했다. ‘슈퍼맨 리턴즈’, ‘나니아연대기’, ‘80일간의 세계 일주’, ‘가필드’ 등등 그가 참여한 영화이름만 나열해도 어느 정도인지 기늠할 수 있다.

전산학을 전공한 그가 어쩌서 할리우드에 등지를 틀었던 걸까. 서울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미국 남캘리포니아대학 전산학과에 입학해 유학생생활을 시작했던 스무살 시절, 남아도는 주말의 시간들을 그는 내내 영화관에서 보냈다. 하루에 서너 편씩 보는 건 예사였고, 지금의 아내가 된 여자친구가 생긴 뒤에도 그의 주말 영화관 나들이는 멈출 줄을 몰랐다고. 영화가 너무 좋아 내가 영화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을까 고민하던 그에게 전산학과 영화의 ‘연결고리’는 바로 컴퓨터 그래픽이었던 것이다. 상상을 시각적으로 구현하는 일, 그가 꿈꾸던 그 일이 직업이 되었다.

그랬던 노준용교수는 왜 한국에 돌아온 걸까. 거액의 연봉을 보장받으며 할리우드에서 컴퓨터그래픽 분야의 우상으로 떠올랐지만, 마음 한 구석은 늘 채워지지 않았다. 거대 시스템이 되어버린 할리우드 영화계에서 노준용 개인이 변화를 주도해가기는 계란으로 바위치기와 같았다. 반면 콘텐츠 산업이 새로이 활기를 띠기 시작한 한국의 컴퓨터 그래픽 분야에서는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더 많아보였고, 현재 그것을 실현중이다.





모든 연구의 출발과 끝은 ‘인간의 행복’

그가 KAIST에서 이끌고 있는 ‘비주얼 미디어 랩’에서는 애니메이션 컴퓨터 그래픽 외에도 가상현실 비주얼환경의 고급화 등에 대해서도 연구하고 있다. 솔직히 고백하건데, 과학기술에 문외한인 내게는 최고의 과학자들이 왜 이런 만화 같은 기술에 집착하는지 의아하다. 현재 단계에서는 그저 장난 같지만 가상현실 분야도 수년 내에 재난방지, 군사, 의료, 에너지 분야 등 인간을 더 안전하고 건강하게 하는 많은 분야에서 활용하게 될 것이라는 게 노준용교수의 대답이다. 실제로 많은 기술들이 장난처럼 시작돼 현재는 없어서는 안 될 기반기술이 된 것처럼. 그런 점에서 기술과 예술은 하나이다. 둘 다 ‘인간의 행복’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연구뿐만이 아니다. 삶의 목표이자 동기 또한 ‘나와 내 주변의 행복’이라고 그는 말한다. 늘 잘 나가기만 했을 것 같은 그에게도 삶의 시련은 있었다. 첫 번째는 대학 입학의 고배(苦杯)였다. 고등학교 시절 줄곧 우등생이었지만 학력고사 전날, 긴장감에 단 한숨도 잠들지 못했고 당연히 시험점수는 형편없었다. 원하던 대학에 갈 수 없어 재수(再修)를 선택했다. 1년 뒤, 두 번째 학력고사 역시 망쳐버리고 말았다.

그리고 시작된 삼수(三修) 생활, 또 망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아예 미국 유학으로 방향을 돌렸다. 다행히 유학생생활 중에 그는 자신의 미래를 찾았던 것.

두 번째 고비는 할리우드에서의 생활을 접고 한국에 돌아왔을 때였다. 수년간 할리우드에서 커리어를 쌓으며 통장의 잔고도 적지 않게 쌓였건만, 미국에 닥친 모기지 사태로 통장 속의 잔고는 그야말로 '제로'가 되었다. 몇 년간의 노력이 송두리째 사라진 것이었다. 미국에서 장애아 재활치료 전문가였던 아내는 유모차를 끌고 다니며 영어 과외 진단지를 돌려야 했다. 이런 고비를 겪으면서도 버텨낼 수 있었던 것은 '자신에 대한 믿음'이었고, 고비가 지난 후에 남은 것은 '나와 내 주변의 행복'에 대한 돌아봄이었다.

노준용교수가 학생들에게 늘 강조하는 것도 "주변의 평가에 흔들리지 마라. 나 자신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밀고 나가라"는 것. 자신에 대한 믿음, 서로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해서인지 그의 연구실엔 제자들이 선물한 아기자기한 소품들이 즐비하다. 한쪽 벽면엔 그의 대형 브로마이드에 학생들이 빼곡히 채운 손편지들. 간간히 "사랑해요, 교수님"도 보인다. 하나같이 남학생들이다.

머리도, 마음도, 몸도 에너지틱한 노준용 교수. 고비를 헤쳐 나온 견고함, 주변을 향한 관심이 그의 에너지다. 그의 에너지는 전염성이 강하다. 2018년 새 봄, 노준용 교수의 연구실에서 어떤 결과물들이 탄생할지 주목해야 한다. CLASSICAL



글 변리영 편집위원



